

독립서점 '지금, 여기' 독서를 묻다



광주문화재단이 '2025 광주 올해의 책 도서전'을 오는 14일까지 전일빌딩245에서 연다. 독립서점이 큐레이션한 서적들(왼쪽)과 스템프투어 체험존의 모습.

광주문화재단 14일까지 전일빌딩245 '지역서점 팝업스토어 도서전' 전국 독립서점 32곳 참여 무인 운영...전시·체험·굿즈 마켓 등 풍성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바르트는 '예상 표절'이라는 도발적인 개념을 통해 문학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작가가 미래의 작품이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포클레스가 프로이트를, 볼테르가 코난 도일을 '미리' 표절한다는 역설처럼, 오래된 텍스트는 종종 오늘의 독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다.

과거에 쓰인 문장이 지금의 현실과 기묘하게 겹쳐질 때 우리는 문학의 현재성을 실감한다. 한 해의 끝자락, 전국 32개 지역 독립서점이 광주에 모여 '지금, 여기'의 독서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4일까지 전일빌딩245에서 '2025 광주 올해의 책 도서전'을 연다. 지역서점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도서전은 전시·체험·마켓이 어우러진 무인 도서전으로 운영된다. 독립서점의 큐레이션을 한 공간에 집약해 단순한 판매를 넘어 책을 다시 사회적 의미로 호출한다는 취지다. 광주문화재단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의 기획과 운영은 광주 지역 독립서점 '책과 생활'과 '예지책방'이 맡았다.

특히 이번 도서전은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

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한국 문학이 다시 광장의 언어로 불려 나온 흐름 속에서 책이 어떻게 다시 현재의 언어가 되는지를 서점의 시선으로 묻는다. 출간 시기나 베스트셀러 순위가 아니라 지금의 사회와 맞닿은 책들이 이번 도서전의 기준이 됐다.

도서전은 전시·체험·마켓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 '전시' 섹션에는 전국 32개 독립서점이 선정한 '올해의 책' 속 핵심 문장이 염서 형태로 소개된다.

'체험' 존에서는 스템프 투어가 진행된다. 책 속 문장과 단어 스템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고, 세상에 하나뿐인 엽서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문장을 읽고, 고르고, 조합하는 과

정을 통해 책을 눈이 아닌 몸으로 감각하게 하는 것이다. '도서 굿즈'를 사랑하는 독서가들을 위한 '미카'도 마련됐다. 참여 서점이 추천한 도서 60여 종과 직접 제작한 굿즈가 함께 소개된다. 책방지들이 직접 쓴 추천사가 담긴 책갈피는 관람객의 선택을 드는 것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나나 올리브에게', 정대건의 '급류', 오찬호의 '납작한 말들' 등 서점이 고른 책들은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도서전을 기획한 책과생활 신현장 대표와 예지책방 차예지 대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오래된 책이 다시 오늘의 언어로 읽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2024년 12월의 기억과 광장의 경험을 지나 곧 2026년을 맞는 이 시점에 전국 책방지들이 주목한 책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재단 배동한 사무처장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지역서점이 이번 실험에 기꺼이 동참해 줬다"며 "전일빌딩245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좋은 문장이 책과 독서 굿즈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지역 서점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과 책과생활·예지책방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을 발표하고 김경태 전남대 교수는 논평한다.

나영훈 목포대 교수의 '담양 회맹 의병의 활동과 추성창의 의미'를 주제로 한 발표에 김희태 전 전남도 문화유산 전문위원이 토론을 한다.

마지막 이옥 순천대 교수의 '광양 구례의 의병 항쟁과 성격' 발표에 정세훈(목포대 사학과)이 토론을 한다.

김중재 회장은 "총무공 이순신의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시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국난극복에 앞장선 나주, 담양, 구례, 광양 등 남도의병의 결기 를 조명하여 지역사회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두 번째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담긴 시대 의미는?

광주·전남발전협의회, 광주향교 유림회관서 오늘 학술세미나

우리 역사에서 호남은 역사적 변곡점마다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若無湖南 是無國家)는 그런 호남의 역할과 정신을 강조한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호남의 정신을 강조한 말로 현대사에서도 곧잘 인용되곤 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담긴 시대적 의미를 풀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덕진 전 광주교육대 교수가 '임란 나주 의병'을 발표된다.

김덕진 전 광주교육대 교수가 '임란 나주 의병'

을 발표하고 김경태 전남대 교수는 논평한다.

나영훈 목포대 교수의 '담양 회맹 의병의 활동과 추성창의 의미'를 주제로 한 발표에 김희태 전 전남도 문화유산 전문위원이 토론을 한다.

마지막 이옥 순천대 교수의 '광양 구례의 의병 항쟁과 성격' 발표에 정세훈(목포대 사학과)이 토론을 한다.

김중재 회장은 "총무공 이순신의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시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국난극복에 앞장선 나주, 담양, 구례, 광양 등 남도의병의 결기 를 조명하여 지역사회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두 번째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영칭	합계 (㎢)	유산지역 (㎢)	인증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 (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연에 갯벌
산과 산에 둘러싸인 철새를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하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출추는 무희, 사취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는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면이활동, 서식굴, 풍동여사, 업남계,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한국 갯벌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갯벌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